■ 박성화 감독이 밝힌 '와일드 카드' 선발 기준

"팀 융합력·목표의식 강해야"

"와일드 카드는 대표팀에 잘 융합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한 선수를 뽑겠다."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에서 사상 첫 메달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 박성화(53) 올림픽대표팀 감독이 와일드 카드의 전제조건으로 팀 융합력과 강한 목표의식을 꼽았다.

박성화 감독은 24일 서울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조편성에 만족한다. 경기장을 답사한 결과 환경도 좋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어려운 상대들과 같은 조에 편성됐지만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이어 "대표팀은 20세 이하 대표팀 출신 선수들이 많이 합류해 전력이 향상됐다"며 "아직 조직력과 결정력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와일드카드의 활용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올림픽대표팀에서 와일드카드를 활용해왔지만 그리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많은 선수들이 팀에 흡수되는 것"이라며 "선수들과 잘 융화되고 확실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팀 전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선수들을 뽑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감독은 이어 "목표의식이 결여되면 집념이 떨어질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군면제를 바라는 선수들을 와일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성 등 8명 후보군 확정

박성화 올림픽대표팀 감독이 24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팀은 이미 올림픽대표팀 염기훈(울산), 조재진(전북),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김정우(성남), 김동진, 이호(이상 제니트), 김치곤(서울), 김치우(전남) 등 8명을 와일드 카드 후보군으로 확정한 상태다.

이 중에서 박지성, 조재진, 김동진의 발탁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소속팀과 차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김정우나 김치우 등이 우선적으로 뽑힐 가능성도 높다.

박 감독은 "박지성 등의 차출이 힘들 때를 대비해 다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분위기로 볼 때 와일드 카드 차출에 문제는 없을 듯하다"고 낙관했다. 최근 K-리그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박현범(수원) 등 새 얼굴에 대해선 "훈련 일정이 힘든 데 새로운 선수가 합류할 경우 팀 분위기와 조직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올림픽대표팀은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국내에서 1차 전지훈련을 갖고 7월 21일 재소집해 8월2일까지 2차 훈련을 마친 뒤 8월3일 중국으로 출발할 계획이며, 그동안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르기로 했다.

맨유 결승행 유리한 고지

바르셀로나 원정서 무승부
박지성 풀타임 출전 맹활약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내달 21일(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치니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무대에 설 수 있을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한국인 3총사' 중 나 홀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지성이 최고 무대인 2007-2008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꿈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박지성은 앞서 "내 바람은 맨유가 모스크바로 가는 것"이라며 결승에 강한 기대를 보였다. 24일 FC 바르셀로나와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원정에서 0-0 무승부를 이끌어낸 맨유가 일단 모스크바행 티켓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계산대로 바르셀로나의 안방인 누캄프(수용 관중 9만8천787명)에서 철저한 수비 전략으로 상대의 기선 제압 기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오는 30일 홈 구장인 올드트래퍼드로 옮겨 운명의 2차전을 치르는 맨유로선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더블'(정규리그·챔피언스리그 2관왕) 달성을 노리는 맨유는 올해 프리미어리그 성적 25승6무4패 중 안방에서는 16승1무1패의 높은 승률을 보였다. '안방 불패'를 2차전에서도 이어가겠다는 기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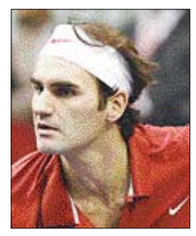
박지성은 24일 바르셀로나와 원정 1차전에서 선발 출전해 전·후반 90분을 풀타임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AS로마(이탈리아)와 8강 두 경기에 이어 챔피언스리그 3경기 연속 풀타임 출장이다.

그는 왼쪽 측면 공격수임에도 수비에 적극 가담해 상대 주 득점원인 리오넬 메시를 효과적으로 막고 평점 6을 받았다. 선발로 나선 맨유 공격수 중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웨인 루니, 카를레스 테베스(이상 평점 5)보다 좋은 평가다.

퍼거슨 감독의 강한 믿음을 얻은 박지성이 2차전 승리 기쁨을 만끽하며 결승 무대에 설지 주목된다.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누캄프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FC바르셀로나와의 2007-08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박지성(사진 오른쪽)과 잔루카 참브로타가 공을 다투고 있다. 이날 경기는 0-0 무승부. /연합뉴스

페더러 힘겨운 16강행
무명 선수에 2-1 신승
ATP 몬테카를로 단식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7·스위스·사진)가 올 시즌 힘겨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 출전한 4개 대회에서 한 번도 결승에 오르지 못하다가 21일 포르투갈에서 끝난 에스토릴 오픈 결승에서 상대 기권으로 첫 우승을 거둔 페더러가 이번에는 세계 137위 무명 선수에게 덜미를 잡힐 뻔 했다. 세계 1위 페더러는 24일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마스터스 시리즈 몬테카를로 단식 2회전에서 루벤 라미레스 히달고(스페인·137위)에 2-1로 이겨 16강에 진출했다.

체육회 사무총장 내정자
구안숙씨 결국 자진 사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대립하는 단초가 됐던 구안숙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구안숙 내정자는 24일 오후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드림'이라는 서한을 통해 "오랜 숙고 끝에 체육회 사무총장직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지만, 본인의 경력이 체육회 현안을 처리하기에 부적합하여 인준거부 사유가 된다면 더 이상 체육회에서 역할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림픽 등 체육계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할 중차대한 시기에 논쟁의 중심에 놓인 당사자로서 그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체육회 이사회에서는 다시 공석이 된 사무총장직을 놓고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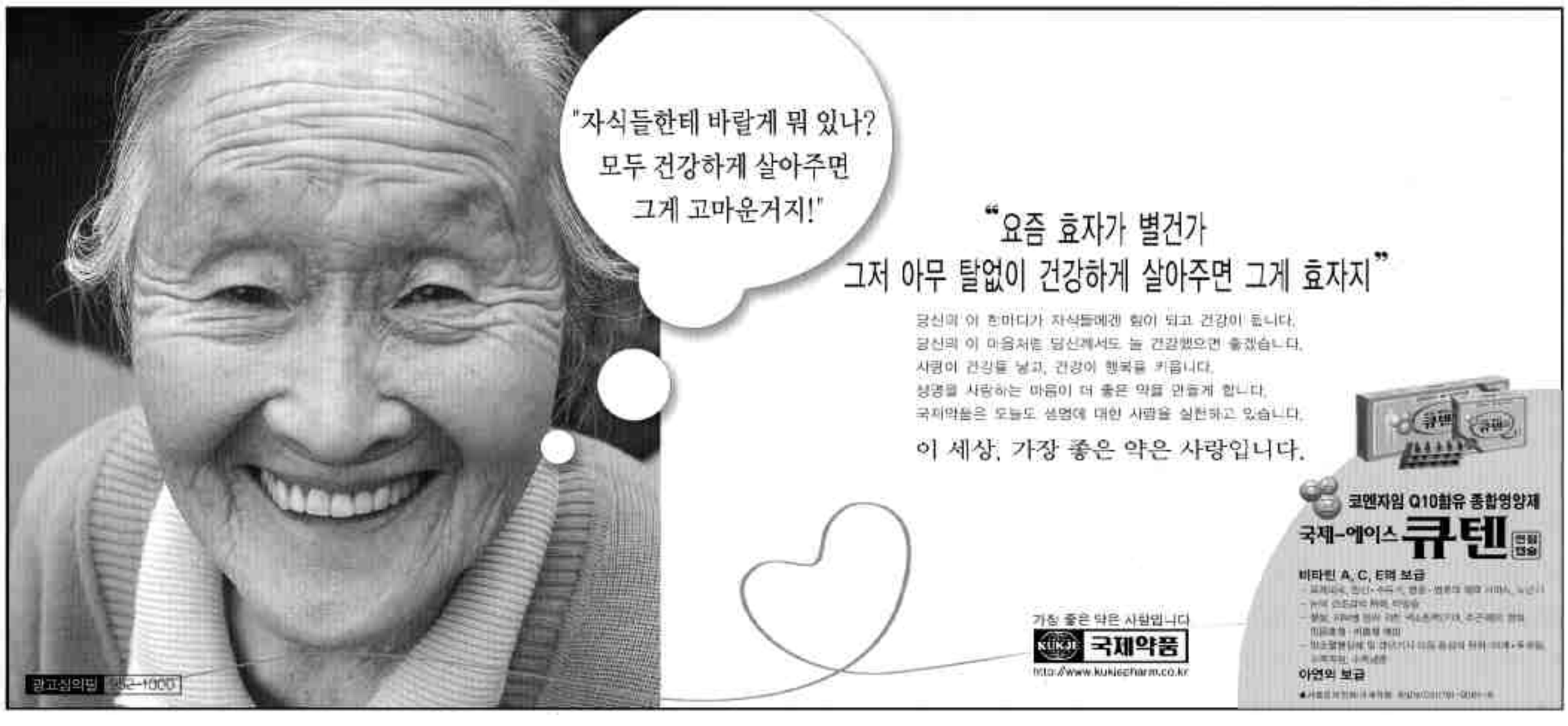
스포츠중계

25일 (금)

▲2008 프로야구〈기아 : SK〉(18 : 10·SBS스포츠), 〈롯데 : 삼성〉(18 : 20·X-PORTS·MBC ESPN), 〈두산 : 한화〉(18 : 00·KBS N SPORTS)

▲제 42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서울고 : 화순고〉(13 : 00·KBS N SPORTS)

▲2008 SBS코리안 투어 토마토저축은행 오픈 2R(14 : 10·SBS골프)

26일 (토)

▲2008 LPGA 스탠포드 인터내셔널 프로암 2R(04 : 00·SBS골프)